

글로벌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아시아

IMF Survey online

2012년 2월 1일

- 외부 수요의 감소로 아시아의 성장 지체
- 아시아는 유럽에서 발생한 금융 전염에 여전히 취약
- 대부분의 경제국들은 경제가 더욱 침체되더라도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할 여력이 있음

IMF의 전문가들은 아시아 수출에 대한 수요 감소가 이 지역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아시아의 경제는 강력한 국내수요가 지속되는 것에 힘입어 비교적 계속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의 전문가들은 아시아 수출에 대한 수요 감소가 이 지역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아시아의 경제는 강력한 국내수요가 지속되는 것에 힘입어 비교적 계속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의] 수출은 세계 및 역내 무역 상대국들의 성장이 둔화되어 탄력을 잃었으나, 지금까지는 견실한 국내수요가 성장 지체를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IMF의 아누프 싱(Anoop Singh)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말했다.

싱 국장은 아시아는 성장을 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유로 부채 위기가 미친 최악의 영향을 잘 방어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부정적인 연쇄효과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표준 무역-채널 효과가 신뢰효과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전염과 혼합되어 국내수요에 대규모의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면 아시아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싱 국장은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아시아의 성장 지체

IMF는 아시아의 성장률이 금년에는 6 퍼센트 가까이로 유지되고, 그 후에는 점차로 회복되어 2013년에는 약 6½퍼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지난 주에 발표된 IMF의 최신 *세계경제전망*에 근거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금년의 예상 글로벌 성장률이 9월에 마지막으로 예측한 이후 ¼퍼센트 포인트 하락한 3.3 퍼센트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이 아시아에 대한 성장 예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IMF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금년에 7.3 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금은 원래 이 수치를 8 퍼센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중국은 2012년에 8.2 퍼센트의 견실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 수치는 작년의 예측에 비해 0.8 퍼센트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정책적 대응 여력

싱 국장은 언론인들에게 금년에 다시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이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수출에 의존하는 이 지역의 여러 경제국들은 경기부양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일본의 중앙은행은 자산 매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싱 국장은 균형 조정 노력을 계속하여 외부 흑자를 축소하면 외부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균형 조정과 국내 성장 요소 강화에 계속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싱 국장은 말했다.

“어떤 국가들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금융 시스템을 자유화하는 개혁을 시행해야 하고, 다른 국가들은 민간 투자의 조건을 개선하여 기반시설 병목 문제를 해결하고 지배구조와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싱 국장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금년은 아시아와 관련하여 IMF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IMF와 세계은행은 연차총회를 금년 10월에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싱 국장은 회의 장소를 세계 경제에 대한 일본과 아시아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IMF와 아시아 사이의 건설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한국. 아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이 지역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사진: Jeon Heon Kyun/epa/Corbis)